

'현우경' 이야기 (9)

효행의 공덕

어머니 대신 목숨 끊고 늑대에게 육신 보시

특차시리라는 나라에 제바라라는 왕이 살고 있었다. 나라는 매우 부강했고 백성들도 항상 풍족한 생활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다. 제바라 왕에게는 나후라는 대인이 있었다. 나후는 육망에 가득 찬 사람으로 항상 반역을 꾀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나후는 군사를 소집해 궁을 쳐들어와 왕과 왕자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다. 왕에게는 10명의 왕자들이 있었지만 나후의 군사들에 의해 살해당하고 말았다. 막내 왕자인 수바라만이 목숨을 건졌다. 수바라는 궁을 빠져나와 산책을 하던 중이었다.

궁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던 수바라는 숲 이곳저곳을 다니며 풍경을 감상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때 한 아치가 수바라 앞에 나타나 말했다.

"나후가 반역을 일으켜 지금 부왕과 형들이 시해 당했습니다. 얼른 몸을 피하십시오."

수바라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곧장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달려갔다. 수바라에게는 아내와 수사제는 7살 난 아들이 있었다. 수바라는 아내와 아들이 무사한 것을 보고 안도했다. 수바라의 아내는 잔뜩 겁먹은 표정을 하고 있는 수바라가 걱정돼 물었다.

"왜 표정이 안 좋으십니까?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금 나후에 의해 아버지와 형들이 다 죽었다고 하오. 지금 즉시 몸을 피해야 하오."

수바라는 아내·아들과 함께 다른 나라로 길을 떠났다. 수바라는 길을 떠나기 전 급한 마음에 세 사람 몫의 양식을 준비하지 못했다. 결국 보름 정도 지나자 가져온 양식은 거의 바닥나고 말았다. 수바라는 고민에 잠겼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두 길에서 죽을

것이다. 한 명이라도 입을 줄여야만 살 수 있다."

수바라는 결국 아내를 죽여 아들과 자신을 살리고자 했다. 수바라는 아내에게 아이를 업고 앞서서 걷게 했다. 수바라는 칼을 꺼내 들어 뒤에서 아내를 죽일 작정이었다. 그때 아들이 갑자기 뒤를 보았다. 수사제는 아버지가 칼을 빼어 들고 어머니를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보고 말했다.

"아버지, 제발 어머니를 죽이지 마십시오. 어머니를 꼭 죽이셔야 한다면 제가 어머니 대신 목숨을 끊겠습니다."

"안 된다. 어머니를 죽이면 너와 나는 살 수 없다. 그리고 너는 특차시리국의 왕위를 이어 받아야 한다."

"안됩니다. 어찌하여 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부모를 죽일 수 있던 말입니까?"

수사제는 결국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사제는 목숨이 다하기 전 아버지에게 말했다.

"부디, 몸 건강히 다른 나라에 도착해서 어머니와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수바라는 죽어가는 아들을 보며 슬피 울었다. 이때 이 모습을 지켜본 하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부모의 목숨을 살린 수사제의 모습에 하늘 사람들은 원통해 했다. 제석천왕은 수사제의 본심을 시험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와 늑대로 변해 수사제 앞에 나타났다. 수사제는 늑대의 모습을 보고 생각했다.

"어차피 난 죽은 목숨이다. 이 짐승에게 나의 육신을 보시한다고 해도 아까울 게 없다."

수사제는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육신을 내어주기로 했다. 제석천왕은 수사제가 후회 없이 자신의 몸을 보시하는 것을 보고 감탄했다. 제석천왕은 자신의 실제 모습을 드러내며 수사제에게 말했다.

"너는 자신의 목숨으로 부모에게 효도를 했다. 그 공덕으로 무엇을 얻고 싶은가?"

"저는 그 공덕으로 불도를 구해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싶습니다."

수사제가 서원을 세우자 수사제는 다시 목숨을 얻게 됐다. 이 소문은 모든 나라에 퍼졌고, 수사제 부모가 도착한 나라의 왕도 이 소식을 듣게 됐다. 왕은 수사제를 기쁘게 여겨 온갖 공양을 베풀었다. 그리고 그 왕은 수바라, 수사제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특차시리국으로 돌아와 나후를 처단했다. 부자는 본국의 왕위를 다시 차지하게 됐고,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뤘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때 수사제가 지금의 나이고, 수바라는 지금 나의 아버지 백정왕이며, 어머니는 마하마아이다. 나는 과거의 효행으로 인해 항상 높은 집안에 태어나 많은 복을 받았다. 또 그 공덕으로 지금의 부처가 됐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84@hyunbul.com



삽화·강병호

판만 대장경 속 우화 (11)

- 타고 남은 재를 먹고 깨우치다 -

구성-김홍인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로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군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신중명화

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아주 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촛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놋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징

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 코팅 광택약이라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6. 본제품은 10년간 사용하셔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용량 : 525g
사용기한 : 10년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동형 312-0029-1189-81 예금주 : 고태웅

영일상사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황금위패

고급 밤나무 재질

움직임 없는 수작업 개금

음각으로 각인 후 금칠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조각

규격: 大 / 中 / 小의 다양한 규격

특대제사용위패(가정용)

대표전화 : 02-966-9650
휴대전화 : 010-8238-1511
팩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